

삼국시대 불교조각이 일본 아스카(비조(飛鳥)) 불교조각에 미친 영향

金 英 愛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正編修研究員)

차 례

- I. 머리말
- II. 일본에 건너간 삼국의 불상
 - 1. 기록상의 傳來佛
 - 2. 일본에 現存하는 삼국의 불상
- III. 백제불상이 止利式佛像에 미친 영향
 - 1. 止利佛師의 家系
- IV. 신라불상이 飛鳥불상에 미친 영향
 - 1. 廣隆寺半跏思惟像
 - 2. 童形佛의 出現
- V. 맺음말
- 2. 法隆寺金堂釋迦三尊佛과 止利式佛像의 형성

I. 머리말

일본 비조시대(飛鳥時代)를 백제에서 불교가 전래된 시점을 시작으로 본다면, 일본의 이 시기 불상조각은 다음 3부류로 구분된다.¹⁾ 첫째는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건너간 불상들 즉, 일본측에서 말하는 도래불이다.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불상들이 그들의 신앙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불상들을 모본으로 하여 만든 불상들이었는 것이며, 이때는 한국에서 건너간 장인(匠人)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지식을 가진 장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리불사(止利佛師)이다. 셋째는 삼국과의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비조(飛鳥)시대의 불상으로 일본화되는 불상이다. 이렇게 3부류로 형성되는 불상조각은 불법승(佛法僧)의 삼보의 전래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전파과정에 있어서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일본 고대조각상에서는 세부류 모두 한반도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

1) 飛鳥時代라는 시대구분은 1900년을 전후로 關野貞과 岡倉天心이 처음 사용하였다. 關野貞은 飛鳥時代를 推古朝부터 大化改新(645)경까지, 岡倉天心은 불교전래(552년설)부터 平成천도(710년)까지 주로 飛鳥지방에 수도가 있었던 시대를 飛鳥時代라고 하였다. 현재 일본사에서는 岡倉天心이 廣義의 의미로 언급한 시기(552~710)를 이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미술·건축·고고의 분야에서는 關野貞설과 같은 의미의 분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關野貞이 7세기 후반을 '白鳳期'로 지칭한 이후, 일본조각에서는 白鳳시대를 고대조각사의 시기구분에 포함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飛鳥時代를 불교전래시기부터 670년경까지로 인정하게 되었다. 吉村裕, 「飛鳥白鳳彫刻史試論—時代—樣式的理論への疑問」, 『佛教藝術』 227(1996.6), 町田甲一, 「上代彫刻史上における樣式時期區分の問題」, 『上代彫刻史研究』 吉川弘文館, 1977).

되며, 일본과 삼국과의 교류는 백제중심의 교류에서 점차 고구려·신라와의 교류로 확대되었다.

삼국의 불상이 일본의 비조(飛鳥)시대 조각에 끼친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학들의 지속적인 연구로 인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삼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 한 부분들만 지적하여, 영향관계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일본에서의 고대조각사의 시기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비조(飛鳥)시대와 그 다음 시기인 백봉(白鳳)시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본 논문은 비조(飛鳥)시대의 하한선을 백봉(白鳳)시대의 상한선인 670년경으로 정하여,³⁾ 백제를 비롯한 삼국의 불상이 일본고대조각사의 시원양식인 비조(飛鳥)시대 조각의 3부류를 살펴보고, 먼저 첫째부류는 기록상으로 전하는 것과 현재 일본에 전하는 삼국의 불상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부류는 백제불상과의 관계 속에서, 셋째부류는 신라불상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비조(飛鳥)조각에 나타난 삼국 불상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삼국시대 불교조각이 비조(飛鳥)조각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3부류의 조각은 시기적으로도 순차적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화개신(大化改新)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계기로 다른 양식적인 특색을 보일 것이다. 고구려와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으나, 실제 전래된 기록이나 현존하는 불상이 없고, 고구려의 불상은 신라·백제를 통해 영향을 주었으므로 고구려조각과의 영향관계는 백제·신라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교류관계가 백제중심에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하나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조각에 나타난 영향관계를 살펴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관계도 밝혀질 것이다.

II. 일본에 건너간 삼국의 불상

1. 기록상의 전래불(傳來佛)

일본에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된 이후, 일본은 백제·고구려·신라와 교류를 가져왔으므로 불상 역시 끊임없이 전래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⁴⁾. 특히 초기 일본불교,

2) 국내학자들의 연구로는 姜友邦, 「金銅日月式三山冠思惟像攷」, 『美術資料』 37(1985), 鄭永鎬, 「日本佛像에 보이는 韓國文化의 영향」, 『考古美術』 185(1990.3), 金理那, 「百濟조각과 日本조각」, 『百濟의 彫刻과 美術』(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 1992), 郭東錫, 高句麗彫刻의 對日交涉에 관한 研究」, 『高句麗美術의 對外交渉』(한국미술사학회편, 예경, 1996) 등이 있다.

3) 白鳳時代 上限 설정에 대해서는 ①大化改新(645)이후, ②天智天皇 이후(662~), ③법륜사소실(670) 이후 또는 天武天皇 이후(673) 등으로 대별되는데, 현재 일본 미술사학계에서는 양식사적인 구분에 의해 ③의 경우를 지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白鳳時代의 시기구분론에 대해 정리한 글로는 町田甲一, 앞의 글(1977) 및, 毛利久 「白鳳彫刻의 新羅的要素」, 『佛像東漸』(法藏館, 1983), 大橋一章, 「天原寺의 造佛と白鳳彫刻의 上限はついて」, 『佛教藝術』 128(1980.1) 및 「白鳳彫刻論」, 『佛教藝術』 223(1995.12), 그리고 金英愛, 「7세기후반 新羅佛教彫刻이 일본 白鳳佛教彫刻에 미친 영향」, 『美術史學研究』 214(1999.7) 등이 있다.

4) 불교의 전래에 대해서는 538년(戊午年)설과 552년(壬申年)설이 있다. 전자는 『上宮聖德法王帝設』과 『元興寺伽藍緣起拜資財帳』(이하 원흥사연기로 함)에, 후자는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한 것이다. 『원흥사연기』가 불교전래의 역사와 함께 하는 飛鳥寺의 역사기록인 만큼 무오년설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다. 田村圓燈, 魯成煥譯, 『韓日古代佛教係聯史』(學文社, 1985), p.27.

즉 비조(飛鳥)불교에서 불(佛)을 상징하는 불상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불상이 주 예배대상이었을 것이며, 그것을 모본으로 하여 불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나타난 예는 몇예에 불과하다. 우선 『일본서기』에 나타난 불상의 전래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5).

<표> 『일본서기』에 의한 불상전래 일람

	연도	일본연기(年紀)	한국연기(年紀)	내 용
백제	① 552	흠명(欽明) 13	성왕 30	석가불금동상 1구
	② 584	민달(敏達) 13	위덕왕 31	미륵석상 1구/불상 1구
신라	③ 579	민달(敏達) 8	진평왕 원(元)	불 상
	④ 603	추고(推古) 11	진평왕 14	불상(진하승(秦河勝)이 성덕태자에게 받음)→봉강사(蜂岡寺)를 만들
	⑤ 616	추고(推古) 24	진평왕 38	금동불(60cm)→봉강사에 안치
	⑥ 623	추고(推古) 31	진평왕 45	불상1구/금탑 및 불사리/대관정번(大灌頂幡)1구/소번(小幡)12구→불상은 봉강사(진사(秦寺))에, 다른 것은 사천왕사에 안치
고구려	없음			

위의 <표>를 보면 불교가 전래된 6세기에는 백제에서 불상이 전래되었고, 7세기에 들어서서는 주로 신라에서 불상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평왕대에 몇차례에 걸쳐 불상이 전래된 점으로 미루어 진평왕과 당시 일본 추고천황대(推古天皇代)의 성덕태자(聖德太子)와의 교류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7세기초가 되면 신라와 적대관계에 있던 일본이 친선관계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6).

반면, 고구려에서 불상이 전래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570년 고구려와 일본의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과 성덕태자의 스승 혜자(慧慈)가 고구려의 승려인 점, 그리고 법흥사(法興寺)(비조사(飛鳥寺))건립에 고구려가 개입된 점, 법흥사(法興寺)의 가람배치가 고구려 청암리사지의 가람배치와 일치한 점 등으로 본다면 고구려에서도 불상이 전래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당시 신라의 불교가 고구려에서 전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를 통한 고구려와의 관계도 염두에 둔다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7).

기록 ①은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의 성명왕이 서부희씨(西部嬉氏), 다솔노리사치계(達率怒唎斯致契) 등을 보내 석가금동상(釋迦金銅像) 1구·번개(幡蓋) 약간·경론(經論) 약간을 헌상하였다.’라고 하였다8). 『원흥사연기(元興寺緣起)』의 「노반명(露盤

5) 田村員燈, 「半跏思惟像과 聖德太子信仰」, 『新羅·飛鳥白鳳佛敎文化』(吉川弘文館,1975), pp.54~61, 田添新 譯, 『完譯 日本書紀』(一志社, 1989) 및 崔根泳 外, 『(日本六國史 韓國關係記事 譯註』(篤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4)

6) 당시 신라 진평왕과 聖德太子와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田村員燈, 「新羅送使考」, 『朝鮮學報』90(1979.1),pp.63~92 및 田村圓燈, 魯成煥譯, 「廢戶王과 新羅佛敎」, 『韓日古代佛敎關係史』(學文社, 1985), pp.103~122.

7) 李箕永, 「新羅佛敎의 哲學的 展開」, 『韓國佛敎研究』(韓國佛敎研究院, 1982), 田村圓燈, 魯成煥譯, 「廢戶王과 新羅佛敎」, 앞의 책, pp.102~122.

8) 『일본서기』, 欽明天皇 13년 10월 조 “遣西部姬氏達率怒利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

銘)」에는 성명왕이 “㉔태자상병(太子像并) ㉕관불지기일구(灌佛之器一具) ㉖설불기서권1첩(設佛起西卷篋)”을 보냈다고 전하고 있다⁹⁾. 이 기록에 의하면, ㉔의 태자상은 ㉕와 관련시켜 탄생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록에 나타난 관불상이며, 태자불과는 다르다¹⁰⁾. 이때 태자상은 출가 이전의 신달타태자로 보고 반가사유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¹¹⁾. 그러므로 『원흥사연기』의 ㉔태자상은 출가입산전의 신달타태자, ㉕는 석가탄생불 및 부속구 ㉖는 석가의 전생의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㉑의 불상은 소아도목(蘇我稻目)이 죽자 물부(物部)씨가 향원(向原)의 소아(蘇我)씨의 집을 태우고 경전과 함께 난파(難波)의 굴강(掘江)에 버렸다. 이것은 타국신인 불(佛)을 본국인 백제에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갖는데, 난파(難波)가 백제와 일본이 왕래하는 선박의 정착지이자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㉒의 기록은 “중백제래록심신(從百濟來鹿深臣), 유미륵석상1구(有彌勒石像1軀), 좌백련(佐佰連), 유불상1구(有佛像1軀)”이다¹²⁾. 백제의 녹심신과 좌백련이 가져온 미륵석상1구와 불상1구를 봉안하기 위해 소아마자(蘇我馬子)는 안작촌주(鞍作村主) 사마달등(司馬達等)과 지(訖) 직빙전(直氷田) 두사람에게 불교수행자를 구하도록 하였다. 결국 사마달등(司馬達等)은 파마국(播磨國)(병고현서부(兵庫縣西部))에서 고구려의 환속승 혜편(惠便)을 찾아내어 마자(麻子)의 스승으로 삼고, 마자(馬子)는 집(앵정(櫻井))의 동쪽에 불전을 세우고 안치하였다. 이때 사마달등(司馬達等)의 딸로서 출가한 선신니(善信尼)등을 청하여 공양케 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이때의 불상이 계창(愷倉)시대에 ‘구세관음’이라고 불려졌고, 『칠대사순례기(七大寺巡禮記)』에 ‘마노지(馬瑙之)미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¹³⁾, 또 부여의 부소산에서 출토된 반가상의 예를 들어 이때 전래된 불상을 부소산출토계열의 백제반가상임을 단정짓고 있다¹⁴⁾.

㉓의 기록은 603년(추고 11) 신라의 진평왕이 불상을 성덕태자(聖德太子)에게 보냈는데 진하승(秦河勝)이 성덕태자(聖德太子)에게 받아 이를 안치할 봉강사(蜂岡寺)를 만들었다는 것이다¹⁵⁾. 『광룡사자재교체실록장(廣隆寺資財校替實錄帳)』(관평(寬平)2년)에 ‘회피즙5간(檜皮茸5間)의 금당에 금색미륵보살상일구(金色彌勒菩薩像一軀) 소위태자본원어형(所謂太子本願御形)이 있다’고 하였고, 『광룡사래유기(廣隆寺來由記)』(명응(冥應)8년, 제승찬(濟承撰))에는 ‘이 미륵인 듯한 상은 추고11년에 백제에서 성덕태자에게 헌상한 상’이라고 기술하였다. 단지 내유기(來由記)는 금동미륵보살상으로서 금동불이라고 한 점이 교체실록장과 다른데, 『경태진광룡사대략연기(京太秦廣隆寺大略緣紀)』 등도 이 기록을 따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당시 전래된 불상은 금동미륵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㉔의 기록 ㉕㉖의 기록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서 보내진 불상은 진씨(秦氏)의 씨사(氏

9) 『大日本佛教全書』 제118권 p.138 “大倭國佛法 創自斯歸道宮治天下天國案春岐廣庭天皇御世……. 治天下七年 歲次戊年十二月度來 百濟國聖明王時 太子像并并灌佛之器一具及佛起書卷一” 참조.

10) 『造東大寺司告朔解』 天平寶字6(762)의 4월1일, 석산사의 조영에 대한 기록을 참조하면, “鑄作石山寺太子佛像一太子佛1軀”라는 것으로 태자상을 탄생불로 해석한다. 그러나 『大安寺伽藍起并流記資財帳』의 天平19년(747) 조 “金泥太子佛7軀”, “金泥灌佛像1具”의 기록으로 보아 태자불과 관정불은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

11) 田村圓燈, 魯成煥譯, 「半跏像과 彌勒信仰」, 『韓日古代佛教關係史』(學文社, 1985)

12) 『일본서기』 敏達天皇13年 9월月조 참조.

13) 田村圓燈, 魯成煥譯, 앞의 글, p.91.

14) 大西修也, 「百濟半跏像の系譜について」, 『佛教藝術』 158(1985) 및 「對馬淨林寺の銅造半跏像 について」, 『半跏思惟像の研究』(吉川弘文館, 1985).

15) 『일본서기』에는 “我有尊佛像”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朝野群載』 및 『廣隆寺資財校替實錄帳』(寬平2年)에는 진평왕이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寺) 봉강사(蜂岡寺)에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봉강사(蜂岡寺)는 현재의 광릉사(廣隆寺)를 말하며, 처음에는 구조하원리(九條河原里)에 건립하였다가 후에 태진(太秦)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찰은 성덕태자와 관련된 7개 사찰의 하나로, 이들 사찰 가운데 5개의 사찰이 본존으로 반가상을 모시고 있다는 조사가 있어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다¹⁶⁾.

<표>에 나타난 불상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일본에 전해진 불교는 석가 중심의, 미륵신앙과 더불어 전래된 불교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흐름으로 보아 미륵보살상이 곧 반가사유상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은 일본에 현존하는 대표적인 삼국시대의 불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에 현전(現傳)하는 삼국의 불상

6·7세기에 한반도에서 전래된 불상이 일본내에 과연 몇점이나 전하고 있을 것인가? 기록에 전하는 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는 광릉사보살반가상(廣隆寺菩薩半跏像)이 유일하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비조시대(飛鳥時代)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불상으로는 광릉사보살반가상 외에 범릉사현납보물인 48체불 중 3·4구와 중부(中部)지방과 동북부지방의 3·4구이다¹⁷⁾. 장야현(長野縣) 북안담군(北安曇郡) 송천촌정옥(松川村町屋)의 관송원(觀松院)보살반가상, 장야현(長野縣)과 신사현(新瀉縣)의 경계지역에 있는 관산신사(關山神社)의 금동보살입상, 궁성현(宮城縣) 흑천군(黑川郡) 선형산신사(船形山神社)의 금동보살입상, 동경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보살입상이 동북부지방의 전래불이며, 48체불 중 전래불로 추정하는 것은 학자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48체불중 143호·149호·150호·151호 등의 4구와 갑인년명광배(甲寅年銘光背)(196호)가 삼국과 연관된 전래불로 추정된다¹⁸⁾.

범릉사현납보물 중 143호인 금동여래상(도(圖) 1)은 우리나라 초기 금동불에서 보이는 일광삼존불로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을 결한 여래상을 중심으로 양손을 가슴에 들어 의습으로 감춘 협시보살이 좌우에 서있다¹⁹⁾. 이러한 구조기법은 48체불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특히 중존의 대좌 구조법은 비조불(飛鳥佛)에서는 볼 수 없는 예이다. 이것은 가담리폐사지에서 출토된 두부와 양수족을 잃은 금동여래상과의 유사함이 지적되어 한반도불임이 명료해졌다²⁰⁾. 151호금동여래입상(도(圖)2)은 아무 사심없이 무

16) 田村圓燈, 「半跏思惟像と聖德太子信仰」, 『日本佛教史』4(法藏館, 1983), 稻垣晉也, 「聖德太子建立七箇寺院の創建成立に關する考古學的考察」, 『半跏思惟像の研究』(吉川弘文館, 1985).

17) 久野健의 『古代朝鮮佛と飛鳥佛』(東出版, 1979) 및 「飛鳥佛の誕生」, 『美術研究』315(1980), pp.145~155.

18) 久野健은 1광3존형식인 여래삼존상(143호)·여래입상(151호)·반가사유상(158호)의 3구와 甲寅銘光背(196호)를 들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의 불상으로 일본의 동북부지역에는 11구 정도 남아있는 것을 추정한다. 久野健, 『渡來佛の旅』(日本經濟新聞社, 1981).

19) 범릉사현납보물은 1879년에 범릉사가 황실에 헌납한 것이다(현재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범릉사 현납보물의 총수는 300여건이지만 궁중에 남아있는 것 10건, 범릉사에 반환된 것 4건을 제외하고, 1990년 현재 편입된 것을 포함하여 319건이다. 그 내용은 飛鳥시대의 유물부터 江戸시대의 것까지 있다. 대부분 범릉사에서 사용된 불교관계의 유품이고 그 이외에 미술품예품 등 가치가 높은 자료도 있어 정창원보물과 비교된다. 정창원보물이奈良시대의 盛期, 天平시대의 것이 주를 이루는 것에 반해, 범릉사보물에는 飛鳥·白鳳기에 속하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48체불'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소금동불은 52구, 총59체가 있으며, 그외 광배 40구, 압출불 10구, 伎樂面 31구를 이룬다. 『法隆寺獻納寶物目錄』(東京國立博物館, 및 『特別展法隆寺獻納寶物』(東京國立博物館, 1996).

20) 大西修也, 「百濟佛立像と一光三尊形式」, Museum 315(1977.6), 金春實, 「三國時代如來立像洋式の展開」, 『美術資料』55(1995.6), pp.19~29.

언가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얼굴표정과 시무의·여원인의 수인, U자형으로 새겨진 의습선, 단순화된 발끝, 포탄형의 대좌 등은 비조(飛鳥)조각의 조상(造像)과는 다른 특색으로 백제의 도래물로 추정하고 있다. 갑인명(甲寅銘)광배(제196호, 도(圖)3)는 후면의 명문에 의하면, ‘왕연손(王延孫)’라고 하는 도래인이 갑인년(甲寅年)에 조립했다고 한다²¹⁾. 8엽연화문의 두광을 둘러싼 신광(身光)의 형을 윤곽으로 두른 연당초문, 화불(化佛)을 배열한 광배 화염문의 의장(意匠) 등 우리나라의 신묘명(辛卯銘)금동삼존불(도(圖) 4)의 광배와 유사함으로 갑인년을 59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광배는 이후 법륜사석가삼존의 광배에 이어지므로 일본의 도리식 불상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관송원보살반가상(도(圖) 5)은 화재로 인해 표면은 그슬려 거칠지만 비교적 훌륭하게 남아있다. 그때 잃게된 오른팔은 목제로 후보했지만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하 83호상)보다는 고식을 띠고 있다.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의 정상에는 페르시아의 왕관에서 비롯된 문양을 표현한 탑형의 장식이다. 마투라나 간다라조각, 운강석불 등에 많이 보이는 장식이며, 바미얀 석불의 배후에 새겨진 벽화와 서역의 벽화에도 보이므로 실크로드에 따라 동점해온 문양의 하나로 보인다. 얼굴과 체구가 세신(細身)으로 이러한 보관과 가너린 자세는 국박소장의 금동반가사유상과 흡사하다. 왼팔로 뻗고 있는 연화좌의 연판도 단판식으로 83호상과 같은 형식이다. 그 반가사유상을 전해지는 북안담군(北安曇郡)은 해인족(海人族)으로 알려진 안담족이 개척한 토지인데, 안담족은 한반도계의 민족으로 전한다²²⁾.

관산신사(關山神社)의 금동보살입상(도(圖) 6)은 화재로 인해 두손과 두 다리를 잃었고, 또 지느러미형의 늘어진 천의의 끝도 결실되었다. 그러나 고식을 띤 상으로 얼굴은 가름하고, 두 눈썹에 선(線)을 긋고 있다. 이 눈썹에 선을 새긴 것은 관송원반가사유상에도 보이지만 이런 표현은 일본의 불상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삼국시대의 유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아랫배를 내민 자세와 흉식, 천의의 형식까지 법륜사의 몽전구세관음상(夢殿救世觀音像)에 매우 가까운 요소를 지니고 있다.

선형산신사(船形山神社)의 금동불(도(圖) 7)은 포탄형의 연봉오리 위에 직립한 형으로 머리에는 3개의 화식(花飾)이 있는 보관을 쓰고, 얼굴은 세장하다. 입술에는 고식의 미소를 띠고 있다. 목아래에는 법륜사석가삼존상의 협시 등과 공통되는 장식을 하고 있다. 천의는 배앞에서 X자형으로 교차하여 양팔에서 내려온 천의는 지느러미 형태로 좌우로 퍼져 있다. 어깨에서 내려온 영락은 배위에서 십자로 교차된다. 왼손은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은 위로 향하여 제1지(指)를 펴고, 다른 것은 구부렸다. 측면에서 보면, 체구가 편평하고, 아랫배를 앞으로 내민 자세는 앞의 관산신사(關山神社)의 보살입상과 마찬가지로 몽전구세관음상(夢殿救世觀音像) 등과 공통된다. 뒷면은 천의 등이 모두 생략되고 머리와 몸체 뒷면에 커다란 축이 있다. 몸체에 있는 축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상은 일광삼존형식을 가진 삼존불의 협시로 추정된다. 이 상이 삼국의 불상인 이유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탄형 대좌형식이고, 또 하나는 보관형식으로 이러한 보관형은 중국에서는 산형보관과 삼면보관의 중간의 것으로 나타나있다. 예를 들면 북위의 영안(永安)3년(530)명칭동보살입상과 서위(西魏)의 대통(大統)13년(548)명의 서도박물관장(書道博物館藏)사면불비상의 중앙의 교각보살상의 보관 등이 그렇다. 그러한 보관의 형식은 백제의 부여군수리사지의 금동보살상, 신리출토보살상 등에서 볼

21) 奈良國立文化財研究飛鳥資料館編, 『飛鳥・白鳳の在銘金銅佛』(同朋舎, 1979).

22) 久野健, 「神農の渡來文化」, 앞의 책, pp.103~45.

수 있으며, 이들 불상은 그 수인까지 선형산신사의 금동불과 공통적이다. 이러한 보관형식은 일본의 불상에는 볼 수 없고, 범룡사석가삼존상의 협시와 같은 산형(山形)보관에서 바로 관심사(觀心寺)금동관음입상, 야중사(野中寺)미륵상의 삼면보관으로 변천한다.

어째서 일본의 동북지방에 이러한 고대의 불상이 전해졌는가는 알 수 없으나 동북지방은 고대에는 관동(關東)에서 개척민이 이주된 적이 많고, 또 이 상이 관동(關東)에 사는 한국의 이주민 사이에 신앙되어 그 주민들과 함께 동북으로 이주되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오랜동안 비불(秘佛)이 되어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신앙된 것은 이 상이 건너간 시기가 오래된 것을 시사하는 것²³⁾이다.

이상과 같은 전래불은 7세기 이전에 한국에서 일본에 전해서 비조(飛鳥)·백봉불(白鳳佛)의 모본이 되었다. 6·7세기초에 건너간 불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삼국의 불상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이상 출토지와 전래가 명확한 삼국불을 주로 하여 살펴보았으나 이들 전래불은 우연히도 백제불상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다. 삼국시대의 불상이 얼마나 남아있고, 비조(飛鳥)·백봉불(白鳳佛)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Ⅲ. 백제불상이 지리식불상(止利式佛像)에 미친 영향

지리식(止利式)불상이란 비조(飛鳥)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양식을 일컫는 말로서, 일명 ‘지리식양식(止利式樣式)’에 대한 양식개념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리식양식(止利式樣式)이란 추고(推古)조에 실재한 ‘지리(止利)’(이하 도리라 부름)란 인물의 지도하에 조성된 현 범룡사금당본존의 석가삼존상에 의해 대표되는 유파양식(流波樣式)이지만 동시에 당시 가장 성행하였던 ‘시대양식(時代樣式)’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양식상의 특징은 이 양식(樣式)의 대표작인 범룡사금당석가삼존상이 가진 구체적인 양식상의 특징에 의해 가장 적확(的確)하게 나타날 수 있다²⁵⁾.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당대의 신앙식을 만들어낸 도리의 가계와 그 양식의 대표적인 범룡사금당석가삼존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대양식이며 유파양식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도리가 한반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그 도리식양식에 한반도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 지리불사(止利佛師)의 가계(家系)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불교전래 당시 전래된 불상은 흙명(欽明)천황이 소아도목(蘇我稻目)에게 주었고, 소아도목(蘇我稻目)이 죽자 반불파(反佛派)인 물부씨(物部氏)가 불상과 경전을 난파(難波)의 굴강(掘江)에 버렸다고 하였다. 다음 584년에 백제의 녹심신(鹿深臣)이 보낸 미륵석상 1구는 소아마자(蘇我馬子)의 집(앵정(櫻井)) 동쪽에 불전을 만들

23) 久野健, 「船形山神社の秘佛」, 앞의 책, pp.23~45.

24) 李浩官, 「在日韓國金銅佛像調査」, 『東洋學』 14(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1984) pp.233~235.

이 조사에 의하면, 일본내에는 600여점의 우리나라 금동불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1984년 기준) 160여점이 조사되었고, 삼국시대불상으로는 10여점을 들고 있다.

25) 町田甲一, 「鞍作部の出自と飛鳥時代における」, 「止利式佛像の興亡について」, 『上代彫刻史研究』(吉川弘文館, 1977), pp.105~110.

어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이 불상은 비조사(飛鳥寺)(법흥사)의 가람이 완성된 후 동금당에 안치되었다. 비조사(飛鳥寺)는 소아씨(蘇我氏)와 관련됨과 동시에 비조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흥사연기』와 『일본서기』에는 588년 소아씨의 집에 절을 짓기 시작하자 백제로부터 노반공·조사공·조와공·화공이 왔다는 기록이 나온다²⁶⁾. 이것은 가람불교 구축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백제로부터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람이 완성됨과 동시에 불상을 제작하여 만들었는데, 그것이 현재 금당에 안치된 비조대불(飛鳥大佛)(도(圖) 8)이다. 『원흥사연기』 <탑노반명>에 비조사(飛鳥寺) 대불(大佛)에 관여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주목된다.

“爾時使作金人等，意奴彌首名辰星也，阿沙都麻首名未沙乃也，
鞍部首名加羅爾也，山西首名都鬼也，以四部首爲將，諸手使作奉也”

위 기록에 의하면, 비조대불(飛鳥大佛)의 조성에 4명의 장인(匠人)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4명 가운데 안부(鞍部)의 성을 가진 안부가라이(鞍部加羅爾)가 흔히 비조대불(飛鳥大佛)의 작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안작조(鞍作鳥), 즉 지리(止利)와 어떤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같은 성(姓)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안부(鞍部), 또는 안작(鞍作)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리불사는 어떤 사람인가?²⁷⁾

도리불사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일본서기』이다²⁸⁾. 그의 조부는 사마달등이며, 그의 아버지는 다수나(多須奈)로 밝히고 있다. 사마달등에 대해서는 『부상략기(扶桑略記)』²⁹⁾ 흥명13년조에 ‘대당한인안부촌주사마달지(大唐漢人案部村主司馬達止)가 계천황16년(522)에 입국하여 대화국(大和國) 고시군(高市郡) 판전원(坂田院)에 초당을 짓고 본존을 안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⁰⁾.

584년 백제에서 불상 2구를 가져왔는데, 이때 달등(達等)은 마자(馬子)를 위해 불교수행자를 구하고자 하였다. 결국, 파마국(播磨國)에서 고구려의 환속승 혜편(惠便)을 찾아내었으며, 마자(馬子)의 스승으로 삼게 되었다. 그해 딸 도녀(島女)가 출가하여 선신니(善信尼)라고 이름지었고, 선신니 외에 풍녀·석녀 등 2인의 비구니가 출가하였다. 마자(馬子)는 백제에서 온 미륵상을 안치하고, 선신니 등 비구니 3인을 초대해 일본최초의 법회를 열었으며, 이때 달등은 사리를 구해 마자에게 헌상하였다. 587년 선신니는 백제에 건너가 불법을 배우고, 590년 귀국하여 앵정사(櫻井寺)에 주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달등이 당시 집권세력인 소아(蘇我)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리의 아버지 다수나(多須奈)는 590년 용명천황(用明天皇)이 병을 얻어 불법에 귀의할

26) 『일본서기』 崇峻天皇 “元年春3月……寺工太良未太·文賈古子，盤博士將德白味淳，瓦博士麻奈文奴·陽貴文·
○貴文·昔麻帝彌，畫工白加……”
27) 佛師란 중국·한국에서는 없는 용어이다. 일본의 경우, 佛師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법륜사석가삼존상>의 명문이다. 이에 관해 공사감독자로 해석하는 견해와 당시 師라고 하는 용어에 의해 불상제작의 기술자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며, 이후 佛師는 불상을 제작하는 장인을 일컫고 있다. 田中嗣人, 「飛鳥·奈良の造像活動」, 『日本古代佛師の研究』(吉川弘文館, 1983), pp.22~45 참조.
28) 『일본서기』 推古14년4월·5월조 참조.
29) 『扶桑略記』: 저자는 黃丹(?~1169)으로 神武天皇(초대천황)에서 堀河天皇(1107)까지의 사건을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이다. 총 30권중 16권이 현존한다.
30) 이 기록에 의하면, 불교 공전 이전에 불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584년에 그의 딸인 嶋女가 당시 11세(일본서기), 또는 17세(원흥사연기)라고 하는 다른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시대가 거의 맞지 않는다.

뜻을 비치자 자신도 출가의 원을 세우고, 이어 장육불상과 절의 조성을 발원하였다. 이때 그가 만든 불상이 판전사장육불상(坂田寺丈六佛像)과 그 협시불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도리의 조부로부터의 가계를 살펴보면, 당시 집권세력인 소아씨는 물론 천황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실한 불교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도리의 성인 안작(鞍作), 안부(鞍部)는 어디에서 연원하는가? 안작이란 말 그대로 마구(馬具) 전체의 제작과 관련되므로 그들의 성은 일본고대마구의 변천과 함께한다. 일본은 5세기초 백제로부터 말이 전래됨과 동시에 마구가 도입되며, 이것은 6세기 중엽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는 마구의 특징이나 출토지역에 의해 크게 3시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에 해당되는 문헌기록을 통해 그의 조상을 각각 가야출신, 백제출신, 중국출신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³¹⁾.

『일본서기』에 ‘463년 안부견귀(鞍部堅貴)가 화부(火夫)·금부(禁府)·역부(役夫) 등의 여러 공인과 함께 백제에서 건너가 상도원(上桃原) 등 세곳에 정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³²⁾. 이 기록은 분명 여러 장인들과 건너간 안부(鞍部)가 백제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비조(飛鳥)지역에는 안작을 비롯한 이주민이 대부분 백제출신으로 모두 동한(東漢)씨의 통제를 받았고³³⁾, 당시 세도가인 소아씨(蘇我氏)도 백제출신이라는 설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마달등은 백제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³⁴⁾. 더군다나 그의 딸 도녀(島女)를 백제에 가서 수계를 받게 한 것으로 보아 백제출신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마구의 제작과 더불어 살펴보았을 때 도리의 조부 사마달등(司馬達等)은 백제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구의 제작과 관련된 이들이 왜 불상제작에 참여하는가?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다. 새로운 시장변화에 따라 안부의 내부가 분화되기 시작하여, 크게 신마구를 제작하는 그룹과 더 나아가서는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불교보급집단으로 변하는 것이다. 6세기말 이후 정치·사회·문화 전반이 변화됨에 따라 재래의 공인보다는 한반도에서 이주하는 신기술의 공인(工人)이 득세하게 되는 한편, 성덕태자(聖德太子)의 등장과 더불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는 새로운 기술을 요하게 된다. 마구의 제작이란 목공(木工)·금공(金工)·수공(繡工)·혁공(革工) 등 여러 가지 기술에 능숙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숙련된 기술은 불상조성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안작집단의 장으로서 도리가 비조사의 석가장육상으로서의 동상(銅像)·수상(繡像)에 참여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7세기초 안부집단의 일부는 불상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도리불사가 범룡사금당석가삼존상을 조성하게 되는 배경이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도리의 숙련된 기술이다. 추고천황(推古天皇)의 조서

31) ①가야인설(5세기 전반)은 ‘안작촌주가 東漢시의 조상이 되는 阿智王(阿知使主)에게 인솔되어 제씨족과 한국에서 왔다’(『坂上系圖』의 <姓氏錄>웅신 20년조)는 기록에서, 아지왕의 성명과 ‘漢人’의 의미와 어원에 의해 鞍作村主를 아라가야, 즉 가야인이라고 추정한다.

②중국인설(6세기 전반)은 『부상략기』에 ‘大唐漢人’에서 일본인들이 주로 중국설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마달등을 대당한인으로 하였음에 반해 『부상략기』 권3에서는 그의 아들 안부 다수나를 ‘百濟佛工’으로 기록하고 있다. 水野敬三郎, 『釋迦三尊と止利佛師』, 『奈良の寺 3-法隆寺』(平凡社, 1974.3), 林南壽, 『韓日古代馬具로 본 鞍部首止利佛師의 出身背景』, 『미술사연구』 8(1994), pp.139~155.

32) 『일본서기』 雄略天皇7년(年)조 “…百濟所獻手末才伎, …以新漢陶部高貴·鞍部堅貴·畫部因斯羅我·錦部定安那錦·譯語卯安那等…”. 참조

33) 田村圓燈, 魯成煥譯, 『日本の 佛教傳來』, 『韓日古代佛教關係史』(學文社, 1985), pp.27~45.

34) 權又根, 『朝鮮到來人と古代日本佛教』, 『古代日本文化と朝鮮到來人』(雄山閣, 1988), p.91.

(詔書)에 의하면, 추고천황(推古天皇)은 “내가 장육불을 만들기 위해 좋은 불상의 본을 구하였다. 네가 바친 불의 모형이 바로 짐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였으며, 더욱이 이때 완성한 불상(비조대불(飛鳥大佛))을 금당 안에 봉안하고자 하였으나, 불상이 금당의 문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도리의 기술에 의해 문을 부수지 않고 무사히 넣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도리에게 대인위(大仁位)(관위 12계로 5위에 해당됨.)와 논밭을 하사하였다고 한다³⁵⁾. 이러한 관직을 받은 도리에게 있어 다음 법륜사금당의 석가삼존상을 주조하게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적인 특색과 결부된 당시 집권층과의 친분관계이다. 법륜사는 비조(飛鳥)지역에서 떨어진 반구(斑鳩)에 위치한 안금구(鞍金具) 등의 훌륭한 마구가 출토된 지역으로 7세기초 이미 문명에 대한 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대화(大和)와 난파(難波)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덕태자(聖德太子)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부합되는 장소로서 성덕태자(聖德太子)의 의지를 표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시 소아씨(蘇我氏)와의 친분관계가 있는 당대 제일의 장인이 만든 석가삼존상이 법륜사금당에 안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리하여 당대 최고의 집권층이며 불교문화의 선봉장인 성덕태자와 관련된 법륜사금당의 석가삼존상의 조성이 백제계의 장인(匠人)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법륜사금당석가삼존불(法隆寺金堂釋迦三尊佛)과 지리식불상(止利式佛像)의 형성

(1) 법륜사금당석가삼존불(法隆寺金堂釋迦三尊佛)(도(圖) 9)

초기에 백제에서 건너간 불상과 백제의 후예로서의 도리가 만든 불상은 법흥사(法興寺)본존(609), 즉 비조대불을 시작으로 하여 법륜사금당석가삼존상이 그 전형을 이루면서, 이후 형성된 도리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비조시대(飛鳥時代)를 670년경으로 하한선을 두었을 때, 일본의 역사적 전환기인 대화개신(大化改新)을 계기로 그 이전에 형성된 비조(飛鳥)조각을 비조(飛鳥) 전기(前期)의 조각, 이 이후에 보이는 비조(飛鳥) 후기(後期)의 조각으로 설정할 수 있다³⁶⁾. 따라서 비조(飛鳥) 전기(前期)의 조각을 비조불(飛鳥佛)의 시원양식이라고 한다면, 비조불(飛鳥佛)의 원류(源流)를 밝히는데 있어서 백제불의 영향은 절대적이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이다.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비조불(飛鳥佛)의 원류를 밝히고자 하였지만, 결국 백제불의 영향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분류는 북조기원설과 남조기원설로 나뉘게 된다³⁷⁾.

석가삼존상의 광배에 196자의 명문이 있어 주목되는데, 태자의 모친인 간인황후(間人皇后)가 621년 죽고, 다음에 태자와 황후가 병이 나자 병의 치유를 기원하기 위해 사마안수(司馬鞍首) 도리불사에게 태자 등신(等身)의 상을 만들게 한 것이 623년에 완성된 이 석가삼존상이다³⁸⁾. 우리는 이 석가삼존상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시대양식으로 풍미하

35) 『일본서기』, 推古天皇13年 4月조 참조.

36) 町田甲一은 大化改新을 경계로 飛鳥 前期양식은 止利樣式이, 飛鳥 後期는 非止利樣式이 유행한다고 하여 非止利樣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町田甲一, 앞의 글 참조.

37) 북조기원설은 北魏-東魏-高句麗-百濟-止利樣式의 루트로서 姜友邦·松原三郎·大西修也 등의 설이며, 남조 기원설은 梁-百濟-飛鳥, 또는 止利樣式의 루트로, 金理那·久野健·吉村恰 등의 설이다. 이를 정리한 글은 金英愛, 在日韓國佛像의 研究現況, 『講座美術史』(1992.6).

38) 奈良國立文化財研究飛鳥資料館編, 『飛鳥·白鳳の在銘金銅佛』(同朋舍, 1979).

는 도리식양식의 특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석가삼존상의 본존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의 구도로 얼굴과 손이 다소 큰 느낌으로 시무의·여원인을 하고 있다. 의습은 좌우대칭으로 도식적인데, 두터운 의습속에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어 다소 평면적이다. 법의는 통견으로 사선의 승각기(엄액의(掩腋衣))와 띠매듭이 있다. 이것은 인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효문제(孝文帝)의 화화(華化)정책 이후의 북위 후반기, 용문기에 보이는 것으로 백제불상과 일본의 비조시대(飛鳥時代)에 한한다. 얼굴은 길고 살구형의 눈을 뜨고 있으며, 입주위가 약간 올라간 양월형의 두터운 입술을 한 ‘고졸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엄격함이 느껴진다. 이러한 불상양식은 한반도의 삼국시대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더 나아가 북위에서 동위에 걸친 불상들, 특히 용문석굴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제인의 후손으로 도리가 삼국불상을 모본으로 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도리양식을 창출해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백제조각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석가삼존상의 본존 대의 착의법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통견의 대의끝이 왼편 어깨에 걸쳐있는 점이 그것으로, 이 점은 백제의 <경4년명금동불>을 비롯한 백제불상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 하겠다. 이것은 백제 조각가들의 영향 및 불상에 대한 신지식의 도입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중존의 석가여래는 2중의 선자형 대좌 즉 상현좌이며, 좌법(坐法)은 오른다리를 위에 올린 결가부좌이다. 목은 원통형으로 길고, 어깨와의 연결은 다른 불상보다 사실적이 아니다. 소위 삼도(三道)도 아직 나타내지 않았다. 또 귀는 평판으로 길다. 법의는 그 자락을 좌우로 펼쳐 그 의문은 장식적으로 정돈하고 있다. 즉 의습의 자연스런 상태를 묘사하지 않고, 의(衣)의 평면을 전후로 평면적으로 겹쳐서 이것을 규칙적으로 좌우상칭으로 정돈하고 있다. 후면은 왼쪽 어깨에 걸친 법의의 끝이 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외에는 모두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좌우협시상은 천의를 두 무릎에서 X형으로 정연히 교차시키고, 그 끝은 두팔에서 몸쪽으로 내려뜨리고 있지만, 이것은 딱딱하게 평판상으로 나타내었다. 몸쪽으로 내려뜨린 부분은 바깥쪽으로 지느러미형으로 뻗어 좌우 대칭적으로 정돈하고 있다. 몸체의 조성은 편평하며 후면 역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북위 후반, 동서위 삼국시대의 불상양식과 공통적이며, 도리식 양식의 근본을 조형하고 있는 특징이다. 보살상의 천의도 부조적인 방법에 기초한 편평(扁平)양식으로 의습선이 사실적으로 새겨져 있지 않고 의습의 면이 정면으로 거둬 중첩되어 있다. 또 머리카락이 고사리손같이 말리게 표현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법륜사 몽전(夢殿)의 구세관음상이며, 이것은 성덕태자 사후, 추고말(推古末) 서명초(舒明初)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2) 지리식불상(止利式佛像)의 형성

앞에서 살펴본 법륜사금당 석가삼존불의 특징 중에서 도리식양식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로, 불의(佛衣)의 착의법과 상현좌의 의문표현만으로 삼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의(佛衣)의 착의법은 북위(北魏) 운강 제16동의 여래입상으로부터 나타난 중국식불의, 북위식 착의법을 말하며, 이것은 명치끝의 띠매듭을 특징으로 보아 신대식(紳帶式) 불의라고도 한다³⁹⁾. 1매의 장방형 대의를 승각기와 거의(距衣)의 위에 걸치는 것으로,

39) 村田靖子, 「止利式佛像の服制について—枯察-結紐と裳懸座—」, 『美術史』 31(1992.2).

우선 왼쪽어깨에서 걸쳐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덮어, 그것을 등에서 돌려 오른쪽 어깨와 팔을 덮어, 다시 앞에서 돌려 가슴과 배의 정면을 덮는다. 그 남은 끝을 마지막으로 왼팔에 걸친다⁴⁰). 법륜사석가삼존의 본존의 경우, 정면에서는 왼팔에 걸친 듯이 보이지만 실은 후면에서 보면 대의끝은 크게 왼쪽어깨에서 팔까지 걸쳐 있다. 이것은 대의를 어떻게 두르고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왼편 가슴쪽에서 한번 대의를 반전시킨 듯하다. 2매의 포(布)가 왼편어깨를 덮고 있는 듯 나타나며, 이것이 도리식 불상의 특징이다. 이 북위식 복제는 고구려의 연가7년명여래상(539)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대의의 형식은 백제불상인 정지원명금동삼존상(도(圖) 10)·금동여래입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태안마애불(도(圖) 11)·서산마애불(도(圖) 12)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대의의 깃을 세워 가슴이 크게 열려있는 점은 북위식의 복제와 유사하지만 대의의 끝이 왼쪽 어깨에 걸쳐있는 점이 다르다. 즉 법륜사금당석가삼존상의 경우는 그 대의의 끝을 어깨와 팔에 걸친다는 점에서 중국식 착의법과 한반도의 양식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백제 불은 동위대(東魏代), 북제(北齊)·주대(周代)의 중국조각에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7세기초 이러한 불상들은 배면(背面)까지 조형된다.

이러한 불의(佛衣)에서 주목되는 것이 띠매듭으로 중국의 경우, 띠매듭과 그 띠가 밖으로 대부분 드리워지거나 드러나는데, 그 예를 맥적산석굴의 여래좌상들에서 볼 수 있다⁴¹). 그러나 태안마애불이나 서산마애불, 그리고 익산연동리 석불좌상에 나타나는 띠매듭은 둥그런 묶음만이 대의안에 보일뿐이다. 이러한 띠매듭이 나타나는 것이 도리식 불상의 전형을 이루어 법륜사석가삼존상을 위시한 법륜사현납보물의 전래불인 143호(도(圖) 1)·149호(도(圖) 13), 대일방(大日坊)여래입상(도(圖) 14) 등에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대좌전면을 긴 치마의습으로 덮고 있는 상현좌와 그 상현좌에 나타난 U자형 의문은 법륜사금당삼존상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현좌는 인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중국의 경우 그 기원은 5세기 후반 북위의 운강제6동 후실남벽의 불상에 보이기 시작하여 남조에서는 영명원년명(483) 무량수불에 더욱 발달된 형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현좌와 더불어 그 의문에 표현된 U자형 의문은 용문석굴에서 다시 동류하여 산동에 미치고, 이것은 다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에 미친다⁴²). 따라서 이러한 상현좌와 그 의문 표현은 삼국의 반가사유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백제의 군수리 석조여래좌상(도(圖) 15)을 비롯하여 백제도제대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띠매듭과 상현좌의 형식이 나타나는 불상은 법륜사약사여래입상(도(圖) 16), 법륜사석가여래 및 협시상(도(圖) 17) 48체불 중 145호여래입상(도(圖) 18)이다. 145호상은 얼굴의 행인형(杏仁形)의 눈이 더욱 가늘어지고, 두발(頭髮)은 소라형의 표현이지만, 시무외, 여원인의 수인을 비롯, 상현좌의 표현은 거의 법륜사석가삼존상의 중존을 따르고 있다.

법륜사석가삼존상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불타의 조형에 강한 정신성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조부(祖父)이래 불법홍용에 전념해온 도리의 의지 표현이며, 더 나아가 당시

40) 長廣敏雄, 「佛像腹制」, 『大同石佛藝術論』(高桐書院, 1946).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冠冕式복제로 탁발족출신의 북위황실에 있어서 漢化정책의 일환으로 복제개혁(太和, 5년(年), 480, 481~486)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황제=불타라는 당시의 신앙형태를 알 수 있다.

41) 村田靖子, 앞의 글 참조.

42) 춘전정자(村田靖子), 앞의 글 및, 「佛像の懸裳の特異な衣文について-飛鳥佛の源流お求めて」, 『佛教藝術』 216(1994.9), 文明大, 「百濟 佛像彫刻의 對日交涉」, 『百濟美術의 對外交渉』(圖書出版 藝耕, 1998).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성덕태자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식의 불상은 법룡사금당의 약사여래상을 비롯하여 7세기 중반까지 ‘지리식불상(止利式佛像)’이라는 양식을 형성하지만 소아씨(蘇我氏)의 일족이 멸망하는 대화개신(大化改新)(645)과 더불어 도리식불상도 종말을 고하게 된다.

3. 신라불상이 비조(飛鳥)불상에 미친 영향

(1) 광룡사보살반가상(廣隆寺菩薩半跏像)(도(圖) 19)

나라(奈良) 경도(京都)에 있는 광룡사(廣隆寺)는 사천왕사(四天王寺)·법룡사(法隆寺) 등과 함께 성덕태자(聖德太子)와 관련된 일본 7대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그곳에 있는 광룡사(廣隆寺)반가사유상은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 첫째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이하 83호 상)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양식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앞의 기록상으로 전하는 불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광룡사(廣隆寺)는 603년 진하승(秦河勝)이 성덕태자로부터 불상을 하사받아 그것을 본존으로 봉안하기 위해 사찰을 세운 것이다⁴³⁾. <광룡사연기>(836)에 의하면, 이 절은 구조하원리(九條河原里)에 세워졌으며, 후에 태진(太秦)으로 옮겼다. 이때 봉안된 불상을 『부상략기(扶桑略記)』에는 ‘미륵상’이라고 하고 『광룡사자재교체실록장』(890, 이하 실록장)에는 ‘금색미륵보살상일구(金色彌勒菩薩像一軀)(고(高)2척(尺)8촌(寸)) 소위태자본원어형(所謂太子本願御形), 『광룡사내유기』에는 ‘이 미륵인듯한 상은 추고11년에 백제에서 성덕태자에게 기증한 상’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미륵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찰을 건립한 진하승(秦河勝)의 선조 진씨(秦氏)족은 응신(應神)천황 16년(285)에 귀화한 가야계의 씨족으로 양잠업이 주업이지만 그외에 대륙과 한반도의 선진문명을 일본에 수입하는 것에 주력하여 농경·양주(釀酒) 등 당시의 지방산업발달에 공헌한 씨족이다. 진씨는 당시 산성국 가야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불교를 흥성하게 하여 문화의 향상을 꾀하고 민중의 화합을 발원하였던 성덕태자의 이상실현을 위하여 진씨가 세운 광룡사는 더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다음 『성덕태자전력』(917)에 ‘616년(추고24) 신라불로서 2척 크기의 금동불상을 봉강사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상은 『일본서기』(추고24년 7월조)의 ‘신라견나 말죽세사(新羅遣奈末竹世士), 공불상(貢佛像)’이라는 기사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서기』에 ‘623년(추고31) 7월, 신라·임나에서 불상·금당·사리·대관정번(大灌頂幡)·소번(小幡)이 왔는데, 불상은 갈야진사(葛野秦寺)에 안치하고, 기타는 사천왕사에 헌납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 전해에 죽은 성덕태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태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두 사찰에 봉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광룡사(廣隆寺)는 성덕태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찰로 봉강사(蜂岡寺)·갈야진사(葛野秦寺)·진사(秦寺) 등으로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다. 광룡사(廣隆寺)의 금당에 안치된 불상은 한반도에서 3번에 걸쳐 건너간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즉 603년상(추고11)과 616년상(추고24), 그리고 623년상(추고31)이다. 그런데 현

43) 『일본서기』 “(推古11年 12月己亥朔・皇太子謂諸大夫曰・我有尊佛像・誰得是像以恭拜・時秦造河勝進曰・臣拜之・便受佛像・因以造蜂岡寺“

재 광릉사에는 목조미륵보살반가상과 더불어 그 옆에 같은 반가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우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이하 우는 미륵) 2구만이 있다. 그렇다면 문헌상에 나타난 3상과 현존하고 있는 2불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록상에 나타난 3상중 603년 상은 1150년의 2차의 화재에서 잃었으므로, 나머지 2상을 현존하는 2상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⁴⁾. 그 중에서 광릉사미륵보살반가상(83.3cm)의 크기가 기록상에 나타난 추고31년상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상은 일본의 국보 제1호로서의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국적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문헌적인 검증과 재질문제, 그리고 일본의 학자가 황릉사지출토보살두를 작품상의 모본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라를 국적으로 보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⁴⁵⁾. 실제 고신라의 조각과 양식면에서 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질은 일본에서는 나지 않는 것으로, 한국 특히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의 춘양목(春陽木)인 적송(赤松)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제작기법을 쓰지 않고, 나무의 목심에서 정면으로 조각을 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나무결이 나타나지만, 당초는 칠을 입힌 흔적이 있다. 좌측에 드리워진 띠는 노송나무(장재(樟材))이고, 연화대도 대부분 비자나무(비재(樅材))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는 미륵(67cm, 도(圖) 21) 역시 반가사유형이며, 재질은 노송나무이다. 칠을 입혔는데, 양어깨에서 내려온 천의와 오른발의 일부가 우피(牛皮)제로 되었으며, 두발끝과 의좌, 연화대는 후보한 것이다. 이 불상은 나라시대의 사실주의 조각에 이르기 전의 생경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동미륵보살반가상(93.5cm, 도(圖) 20)과 비교고찰해보자. 사유상은 신앙상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조형상으로 조각은 부조에서 정면관 위주의 환조로, 그리고 다시 완전한 환조로 점차 조소적 성격을 지니고 발전하는데, 그 조형적 완성을 이루어 절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의 83호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83호상과 광릉사상은 형상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양식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보관인 삼산관을 비롯하여, 장식이 적은 세장한 나형(裸形)의 상반신, 그리고 허리에 드리운 옥대(玉帶), 약간 우수를 머금은 온화한 얼굴표정과 입가에 맴도는 미소, 눈썹·눈거풀·코등·입술의 곡선은 비례감과 더불어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83호상은 두 무릎에 걸쳐 의문(衣文)이 새겨져 있지 않아 상반신에서 두발에 이르기까지 동(銅)의 매끄러운 감이 강조되었다. 이점은 광릉사상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단지 이것은 목조이므로 동조의 독특한 맛은 나오지 않는다. 83호상은 고신라의 6세기말 7세기초의 금동불에 나타난 독특한 작품, 즉 삼양동금동관음보살상·양평출토금동불상·거창출토보살입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우수가 깃든 듯한 얼굴과 입가의 미소, 세장한 몸체 등이 나타나고 있다. 83호상은 이러한 작품 및 기법상에서 한단계 진보된 세련미를 보이고 있으며, 더군다나 동조의 매끄러운 근육의 표현이 이색적이다. 이러한 양식을 답습한 보관미륵불은 섬려한 신라특유의 예술감각을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목조의 재질이어서 인지 단순성에서 나오는 고귀한 위엄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후 신라에서는 623년 광릉사미륵보살반가상 외에 백봉시대(白鳳時代)가 되면 688년, 689년 연이어 천무천황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상을 보내고 있다. 비조시대(飛鳥時代)의 이 광릉사상을 계기로 하여 백봉시대(白鳳時代) 이후 일본조각에 신라조각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불상이 건너온 623년은 한반도 귀화인의 후손

44) 毛利久, 「廣隆寺寶冠彌勒像と新羅様式の流入」, 『佛像東漸』(法藏館, 1983).

45) 岩崎和子, 「廣隆寺寶冠彌勒に關する二三の考察」, 『半跏思惟像の研究』(吉川弘文館, 1985).

으로서 백제계의 조각가 도리에 의해 법륜사금당의 석가삼존상이 조상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것이 북위말(北魏末) 동위(東魏)의 영향을 받은 백제류의 근엄하고 단정한 작품임에 비해 보관미륵은 섬려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특색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일본의 비조조각(飛鳥彫刻)에 있어서 광륜사상(廣隆寺像)은 신라양식이 유입된 당초의 한예를 보여주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동형불(童形佛)의 출현(出現)

위와 같이 광륜사반가사유상에서부터 나타난 신라양식의 유입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다른 예가 동형불(童形佛)의 출현이다. 신라는 7세기 초 삼국자세의 금동불상의 유행으로 석불에까지 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천진난만한 표정에 4등신의 체구, 그리고, 약간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는 신라 동형불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광륜사(廣隆寺)보살반가상에 영향을 준 83호상이나, 황룡사지출토 불두(佛頭) 역시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어린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동형불의 선두는 동서위(東西魏)시대부터 볼 수 있어 동위(東魏)의 무정원년명(武定元年銘)(543)석조미륵보살교각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 북제주(北齊周)의 동형불은 머리가 몸보다 크고, 얼굴은 둥글고 어린애다운 표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얼굴의 모습은 자유롭게 나타나 동형(同形)의 천진스러움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수대(隨代)가 되면 이러한 불상 양식은 동형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생생한 얼굴로 변모해간다. 신라의 동형불은 중국의 경우보다는 동형의 불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금동불에서 성행하던 동형의 자태와 얼굴 표정은 경주삼화령불상(도(圖) 23) 등 일대의 석불까지 반영되어 7세기 중엽경에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금동약사여래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圖) 22)과 같이 천진난만한 얼굴에서 7세기 중엽이 되면 선산출토보살상(도(圖) 24)과 같이 미소년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같은 시기의 백제불상의 경우, 군수리 출토 석조여래좌상·규암면금동보살입상 등에도 이런 아동풍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불상의 얼굴에서 느끼는 부드럽고 천진한 분위기는 중국 남조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백제불상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아동풍의 짙달막한 불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신라에서 유행한 동형불은 일본의 경우도 예외적이지 않다. 일본에서도 비조(飛鳥) 후기(後期)부터 백봉(白鳳)시대에 걸쳐 성행한 동형불은 제·주·수조각이 신라를 경유해 전해진 것이며, 특히 일본은 동형불을 선호하여 이것은 곧 백봉(白鳳)시대의 미의 본질로까지 나타난다⁴⁶⁾. 여기서 신라의 영향관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학자들은 아직도 일본 동형불의 근원을 비조(飛鳥)후기의 중국문화 섭취가 옛날부터 취해진 중국·조선·일본의 루트 외에 중국·일본이라는 직수입의 사실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자료로서 드는 것이 견수사(遣隨使)와 견당사(遣唐使)의 역할이다⁴⁷⁾. 그러나 비조전기(飛鳥前期)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일본으로의 불교문화전파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 후기가 되면 추고천황대 후반경부터 점차 신흥의 신라가 그들을 대신하게 된다. 이것은 신라송사(新羅送使)를 비롯한 신라의 역할이 아주 커지기 때문이다⁴⁸⁾. 그 단적인 예가 이 시기에 자주 신라에서 일본으로 불상을 보냈다는 것이 주목된다. 따라

46) 毛利久, 「飛鳥・白鳳佛の童形佛と原流」, 『佛像東漸』(法藏館, 1983), pp.152~163.

47) 東野治之, 「奈良時代遣唐使の文化的役割」, 『佛教藝術』122, 1979.

48) 田村圓燈, 「新羅送使考」, 『朝鮮學報』90(朝鮮學會, 1979.1). pp.63~77.

서 일본 비조후기(飛鳥後期)에 있어 제(齊)·주(周)·수(隋) 양식은 한반도 즉 신라를 매개로 하여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 자연스럽다. 일본의 동형불 역시 원류는 중국에서 구해도 그 직접의 모태는 신라에 있고, 다시 말해 일본·신라의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가 선호한 동형불의 양식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필수 있는데, 하나는 북제(北齊)·주(周) 양식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아주 천진난만한 동형불의 모습이며, 또 하나는 동서위의 영향이 더 짙게 나타나는 경우의 동형불이다. 전자는 아주 천진난만 아동의 얼굴과 4등신의 자세로 대표되며, 대부분 얼굴은 환미가 있고, 머리가 몸체보다 커보이는 불상이다. 후자는 얼굴은 동서위의 경향이 더욱 짙어 대체로 환미보다는 가름하며, 얼굴의 미소는 동안(童顏)이긴 하나, 아동의 티를 벗어난 미소년의 얼굴이며, 몸체 역시 4등신을 벗어나 있는 경우이다.

비조후기(飛鳥後期)에 나타난 일본의 동형불 역시 신라와 마찬가지로 2가지 양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양식은 북제주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신라의 경우와 같이 순수한 동형불의 양식으로 눈과 눈썹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거기에 짧은 코, 입은 작고 사랑스럽다. 2중의 눈꺼풀로 얼굴의 표정은 부드럽고, 얼굴은 대체로 둥글다. 머리는 신체의 1/4~3.5/1로 머리가 큰 느낌이다. 이러한 양식의 불상이 법륜사현납보물 중 168호 관음보살입상·159호미륵보살반가상, 153호여래입상·179호관음보살입상(도(圖) 25)·188호보살입상(도(圖) 26) 등이다. 179호와 188호 보살입상은 형상이 같고, 머리가 커서 가는 목에 의해 한층 동형(童形)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좌 위에 서있는 자세가 사랑스럽다. 또 양 보살상은 치마를 짧게 걸쳐, 두발목을 드러내 아이들 같다.

이상의 동형불은 중국조각사에서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초의 제(齊)·주(周)·수(隋)에 걸쳐 성행한 양식계보로서 이것은 북위에서 동서위에 걸친 좌우상칭의 엄격함에서 탈피하여 드디어 육신에 환미가 나오기 시작, 의문에도 유연함이 가해진 것이 기본적인 특색이다. 이것은 신라에 받아들여지지만 중국의 경우보다 더욱 친근한 어린애같은 천진스런 얼굴에 입가의 양끝을 약간 올리면서 웃는 미소 등으로 신라화 한다. 이러한 양식이 일본에 미치게 된 것은 7세기 중엽 이후 비조(飛鳥) 후기로, 위의 동형불은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

동형불의 제2양식은 북위(北魏)·동위(東魏)의 양식을 받은 것으로 초창기 금동불상의 도식적이고 약간은 가름해진 미소년의 모습으로 몸체는 다소 부드러워지고, 또한 의습도 이전의 좌우대칭적으로 지느러미가 펼쳐지는 표현이 아닌, 정면에서 X자로 교차하거나 손에 보주를 든 형태로 나타나 양식적으로 진전된 양식을 보인다. 이러한 신라의 불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선산출토 불상이다. 이러한 양식은 다시 일본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도리식양식과 병행하여 도입된 반가사유상의 신라양식도 가미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66호관음보살입상(도(圖) 27), 165호관음보살입상(신해년명(辛亥年銘)보살입상. 도28), 목조보살입상(동경국립박물관) 등의 표정에는 아동을 생각나게 하는 온화함이 있지만 얼굴이 약간 길어지고, 단지 눈썹과 눈사이를 크게 하고, 코를 작게 한 정석은 답습하지 않고, 매우 자유로운 조형으로 이전의 동형(童形)을 애호하는 심정이 움직이고 있다. 166호의 보살상과 함께 북위풍·도리계의 흐름을 이끄는 동형불이며, 또한 정형(定形)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제주·수계의 작품과는 계보적으로 한층 다른 취향의 고식을 나타내었다.

다시 이러한 동형양식은 법륜사천개 중 목조낙천좌상(木造樂天坐像)·금룡사관음보살

상(金龍寺觀音菩薩像)·법룡사목조육관음(法隆寺木造六觀音)·석산사금동석가여래좌상(石山寺金銅釋迦如來坐像) 등 백봉시대(白鳳時代)의 불상들에도 나타나는데, 이들 불상은 체구는 작다고 할 수 없어도 얼굴은 둥글고, 눈썹과 눈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코와 입이 작은 점 등이 전형적인 동형이다. 이들 동형불은 신라가 통일되어도 계속 나타나,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하는 불상의 한 양식을 이루듯이 일본의 백봉시대(白鳳時代)에도 하나의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IV. 맺 음 말

이 논문에서는 삼국시대 불상이 일본 비조시대(飛鳥時代) 불상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백제불교가 일본에 전래되기 이전인 6세기초부터 한반도의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때는 백제가 고립되기 시작하며, 고구려와 신라는 점차 국력이 신장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제는 일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으리라 생각되며, 이시기에 백제를 통한 불교의 전래는 자연스런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가야문제로 인해 오랜 적대관계이었던 신라와 일본은 신라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점차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당시 불교의 옹호하였으며,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외교를 실행했던 성덕태자(聖德太子)의 스승을 고구려 승려로 둔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삼국시대의 불상은 끊임없이 전래되면서, 일본 초기 불상인 비조조각(飛鳥彫刻)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기록상으로 전하는 불상과 현재까지 일본에 전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불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존하는 비조시대(飛鳥時代)의 대표적인 불상에 백제와 신라의 불상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6세기 전반 불교가 전래된 초기 비조불교(飛鳥佛敎)는 석가중심의 불교로서 미륵신앙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삼국시대의 불상으로 일본에 현존하는 불상은 8구 정도 되는데, 이들 불상은 삼국의 양식구분은 명확히 하기 어렵지만, 백제불과의 친연성이 짙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일본 초기에는 백제와의 일방적인 교류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백제출신인 지리(止利)가 만든 양식은 비조조각(飛鳥彫刻)의 한 시대양식으로 유행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삼국의 영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넷째, 성덕태자(聖德太子)의 사후(死後)를 전후하여 신라의 불상이 전래되고, 그 신라불은 비조조각(飛鳥彫刻)의 또다른 양식을 형성한다. 광릉사(廣隆寺)보살반가상에 나타난 양식적인 특색은 백제일변도의 영향에서 신라와의 관계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은 도리식불상과 병행하여 일본 비조전기(飛鳥前期) 조각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동형불(童形佛)은 비조후기(飛鳥後期) 조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양식은 뒤이은 백봉조각(白鳳彫刻)에 유행하는 양식으로 부각되었다.

몇가지 고찰에 의해 위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삼국시대의 불교조각이 비조시대(飛鳥時代)의 불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였으나, 비조시대(飛鳥時代)의 불상을 대표하는 백제관음상(百濟觀音像)과 몽전관음상(夢殿觀音像)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소략하지만 이러한 정리에

의해 다시 한번 비조조각(飛鳥彫刻)에 삼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 글은 다음 ‘신라조각(新羅彫刻)과 일본 나라(奈良)시대의 천평조각(天平彫刻)’을 비교고찰하기 위한 선행작업임을 밝히는 바이다.



圖 1. 일광삼존불입상(一光三尊佛立像) (법륜사헌납보물 제143호)

도(圖) 1. 일광삼존불입상(一光三尊佛立像) (법륜사헌납보물 제143호), 28.1cm, 동경국립박물관



도(圖) 2.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법륜사헌납보물 제151호), 33.5cm,
동경국립박물관



圖 3. 甲寅銘光背(법륜사헌납보물

도(圖) 3. 갑인명광배(甲寅銘光背)(법륜사헌납보물 제196호), 594년, 동경국립박물관



圖 4. 金銅辛卯銘三尊佛의 광배

도(圖) 4. 금동신묘명삼존불(金銅辛卯銘三尊佛)의 광배(국보 제85호), 571년, 개인소장



圖 5. 觀松院菩薩半跏像

도(圖) 5. 관송원보살반가상(觀松院菩薩半跏像) (중요문화재) 16.4cm, 장야(長野)



圖 6. 關山神社菩薩立像, 20.3cm, 新潟

도(圖) 6. 관산신사보살입상(關山神社菩薩立像) 20.3cm, 신사(新潟)



도(圖) 7. 선형산신사보살입상(船形山神社菩薩立像), 15.0cm, 궁성(宮城)



圖 8. 飛鳥大佛復原圖(중요문화재), 609년

도(圖) 8. 비조대불복원도(飛鳥大佛復原圖)(중요문화재), 609년, 중존 275.2cm, 비조사(飛鳥寺)(안거원(安居院)), 나라(奈良)



圖 9. 法隆寺金堂釋迦三尊佛(국보), 623년

도(圖) 9. 법룡사금당석가삼존불(法隆寺金堂釋迦三尊佛)(국보), 623년, 중존 87.5cm, 법룡사금당(法隆寺金堂), 나라(奈良)

세종대 446



도 圖 10. 鄭智遠銘金銅三尊像(보물

도(圖) 10. 정지원명금동삼존상(鄭智遠銘金銅三尊像)(보물 제196호), 8.5cm, 국립부여박물관



圖 11. 泰安磨崖三尊佛(보물 제432호), 서산

도(圖) 11. 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보물 제432호), 서산



圖 12. 瑞山磨崖三尊佛(국보 제84호), 서산

도(圖) 12. 서산마애삼존불(瑞山磨崖三尊佛)(국보 제84호), 서산



도(圖) 13.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법룡사헌납보물 제149호), 27.5cm, 동경국립박물관



도(圖) 14. 대일방여래입상(大日坊如來立像), 28.2cm, 산형



圖 15. 軍守里石造如來坐像(보물, 제329호)
13.5cm, 국립중앙박물관

도(圖) 15. 군수리석조여래좌상(軍守里石造如來坐像)(보물, 제329호), 13.5cm, 국립중앙박물관



圖 16. 法隆寺樂師如來坐像(국보),

도(圖) 16. 법룡사약사여래좌상(法隆寺藥師如來坐像)(국보), 63.8cm,
법룡사금당(法隆寺金堂), 나라(奈良)



圖 17. 法隆寺釋迦如來 및 脇侍像

도(圖) 17. 법룡사석가여래(法隆寺釋迦如來) 및 협시상(脇侍像)(중요문화재),
628년, 중존16.7cm, 법룡사(法隆寺), 나라(奈良)



圖 18. 金銅如來坐像(법륜사헌납보물 제145호), 30.8cm, 동경국립박물관

도(圖) 18. 금동여래좌상(金銅如來坐像)(법륜사헌납보물 제145호), 30.8cm, 동경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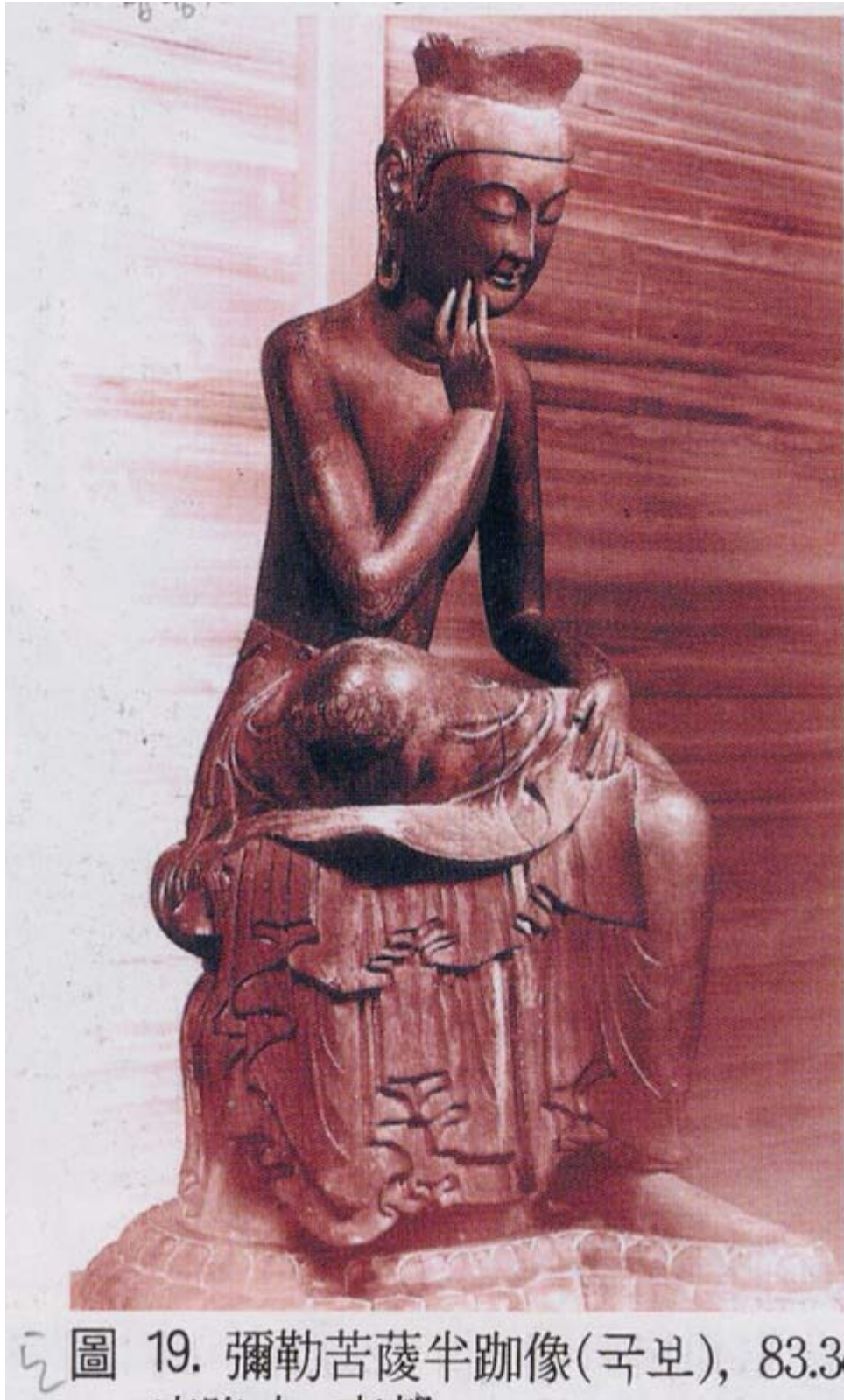


圖 19. 彌勒菩薩半跏像(국보), 83.3

도(圖) 19. 미륵보살반가상(彌勒菩薩半跏像)(국보), 83.3cm, 광릉사(廣隆寺), 경도(京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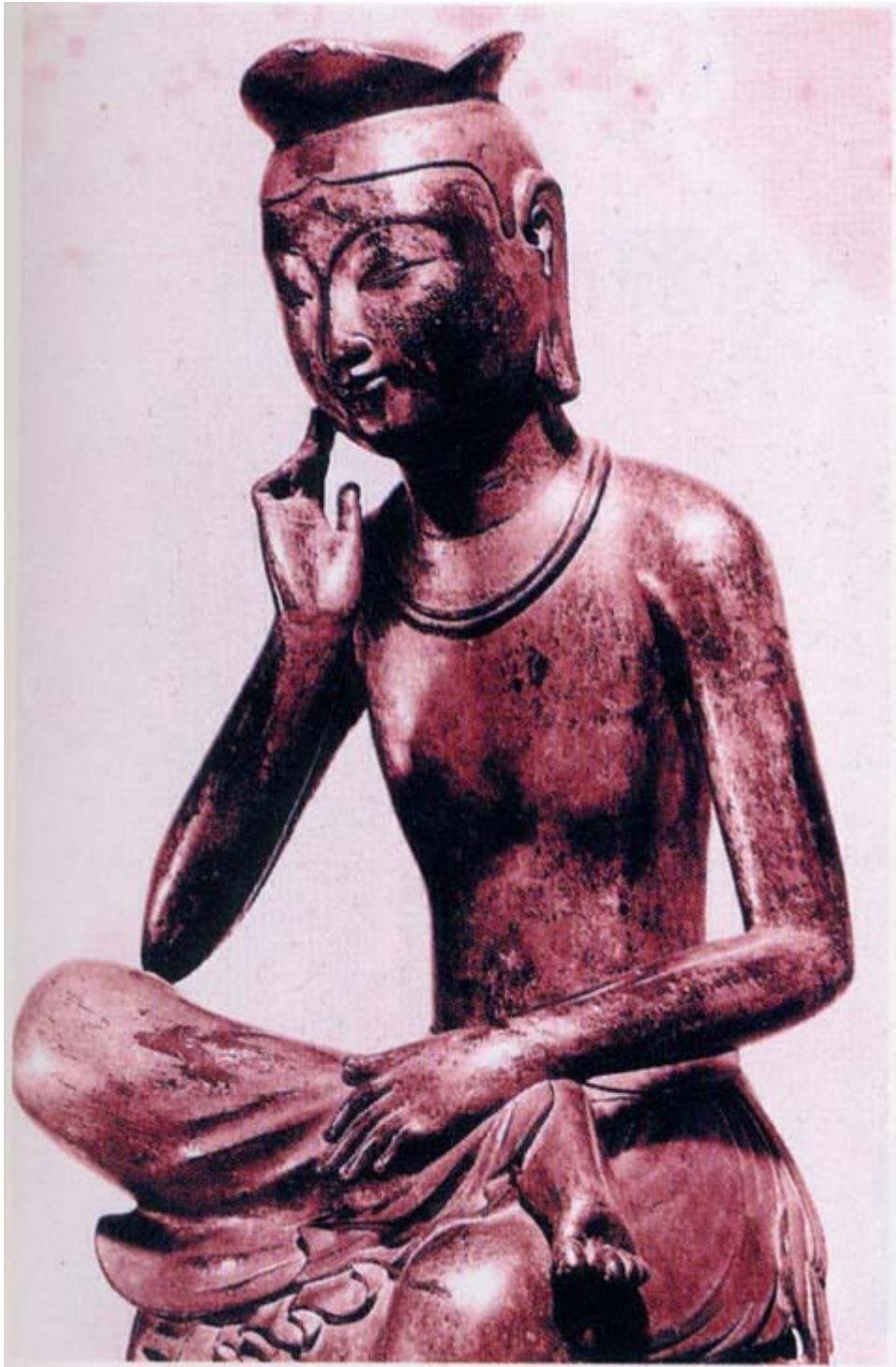


圖 20. 金銅彌勒菩薩半跏像(국보 제83호)

도(圖) 20. 금동미륵보살반가상(金銅彌勒菩薩半跏像)(국보 제83호), 93.5cm,
국립중앙박물관



圖 21. 彌勒菩薩半跏像(국보),

도(圖) 21. 미륵보살반가상(彌勒菩薩半跏像)(국보), 67.0cm, 광릉사(廣隆寺), 경도(京都)



圖 22. 金銅樂師如來立像, 31cm

도(圖) 22. 금동약사여래입상(金銅樂師如來立像), 31cm, 국립중앙박물관



圖 23. 三花嶺彌勒佛像 중 보살

도(圖) 23. 삼화령미륵불상(三花嶺彌勒佛像) 중 보살상, 98.5cm, 국립경주박물관



圖 24-1. 金銅菩薩立像 高

도(圖) 24-1.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국보 제183호), 국립중앙박물관



圖 24-2. 金銅菩薩立像(

도(圖) 24-2.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국보 제184호), 국립중앙박물관



도(圖) 25. 관음보살입상(觀音菩薩立像)(법륜사헌납보물 제179호), 30.0cm,
동경국립박물관



26. 金銅菩薩立像(법륜사

도(圖) 26.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법륜사헌납보물 제88호), 29.7cm, 동경국립박물관



도(圖) 27. 관음보살입상(觀音菩薩立像)(법륜사헌납보물 제166호), 23.3cm,
동경국립박물관



8. 辛亥年銘觀音菩薩立

도(圖) 28. 신해년명관음보살입상(辛亥年銘觀音菩薩立像)(법륜사헌남보물 제165호),
651년,22.4cm, 동경국립박물관